

전남 중부권

산림박람회
홍보 캐릭터
산이와 단이

2012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홍보 캐릭터로 '산이와 단이'가 선정됐다.

전남도 산림자연연구소는 나무와 숲을 연구하는 연구소의 기능과 캐릭터의 친근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이름으로 방문객 등의 선호도 조사를 거쳐 '산이와 단이'를 선정했다.

'산이와 단이'는 남성적인 녹색색의 산과 붉고 노란 단풍이 물든 여성적인 산을 표현했다.



계절 변화에 따라 산이 인간에게 보여주는 가시적인 느낌을 연상토록 해준다.

도 산림자연연구소는 이 캐릭터를 상표등록 해 산림박람회와 남도산림문화축제 등은 물론 연구소 역할과 기능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민국 산림박람회는 25일부터 29일까지 나주산포면 산림자연연구소에서 '건강, 인간이 숨 쉬는 숲'이란 주제로 주박람회장과 치유의 숲, 생활의 숲, 예술의 숲, 희망의 숲, 함께하는 숲 등 5개 주요 전시관에서 열린다.

/장필수기자 bungy@

주민소득 창출 직결되는 축제 개발

‘힐링푸드’ 화순 대표 축제로

매년 4월말~5월 초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화순군이 내년부터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개발형 대표축제를 개최한다.

화순군은 지난 6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비롯해 연초부터 4개월 동안 자원 현장조사와 3회의 설문조사, 2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쳐 '힐링(healing) 푸드(치유+음식)'라는 축제 테마를 도출했다.

또한 홍이식 군수를 비롯한 축제 관계자 5명은 최근 8박10일간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를 중심으로 음식축제 현장을 찾아 벤치마킹했다.

최종 용역 결과 개최시기는 관광객 및 지역민 모두 지역에 불거리가 풍부해야 하고, 주말 집중전략 등으로 4월말~5월 초순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축제장소는 주차공간 등의 수용력, 대중교통 등 접근성, 공간 활용성 등을 고려해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벤트 프로그램 구성으로는 월경 구역, 힐링푸드 구역, 키드존 구역, 힐링 스테이지, 지역연계 프로그램 등 5개 항목 30여개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군은 내년 축제개최를 위해 오는 9월 까지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음식관련 우수축제 참관 ▲적합한 프로그램 선택 ▲예산확보 ▲적극적인 사전홍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우수축제들을 거울삼아 군 대표축제가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가 가능한 각 분야별로 봉사 내용과 소요 인력 등을 파악한 후 각 분야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해 사전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이식 군수는 "주민설명회를 거쳐 도출한 '힐링 푸드'라는 축제 테마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독특한 축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특전캠프 낙하산 경주 훈련

최근 제11공수 특전여단에서 열린 특전캠프 참가자들이 낙하산을 메고 달리는 경주를 벌이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직장인 208명이 참가했다. <11공수 특전여단 제공>

화순군수배 전남 바둑대회 개최

내달 15일 학생·성인부 300여명 참가

제1회 화순군수배 전남 바둑대회에서 개최된다.

화순군 체육회 주관·화순군 바둑협회(회장 노광규)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2개 부문 9개부 300여명이 성인부(최강부, 일반부, 장년부, 시군 단체전)와 학생부(유치부, 초등부, 중고부)로 나눠 기량을 펼친다.

성인부는 화순 군민이 대상이며, 단체전은 도내 22개 시·군에서 1팀 3명이 1조로 2개 팀 이상

출전이 가능해 각축전을 벌일 예정이다.

대회방식은 예선은 4인1조 리그전으로 1명을 선발하는데 30분 경과 후 심판 판정에 의해 승패를 결정한다.

본선은 전 대국을 토너먼트로 진행하며, 예선 대진표는 사전 추첨으로 결정한다.

출진신청은 25일부터 9월10일까지로, 일반부 참가비는 1만원이며 학생부는 참가비가 없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채
구립 공고생 최종 합격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출산 사무소(소장 정장훈)는 최근 국립공원관리공단 고졸 신규직원 채용결과 지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1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졸 신규직원으로 채용된 서명철(18)군은 현재 군서면 구립 공업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다.

이종형 행정과장은 "고졸 신규직원인 서 군의 업무능력 배양과 신속한 사회 적응을 위해 멘터-멘토 협약식, 신규직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지역인재 채용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성기자 moon@

산간마을에 문화사랑방 생긴다

화순 도장리·한계리 2곳 작은도서관 조성

화순군이 마을도서관을 집중 육성한다. 화순군은 "전남도가 공모한 마을도서관 조성사업 5개소중 화순에서 2개소가 선정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산간지역의 문화 사랑방 공간 확보가 가능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도암면 도장리와 한천면 한계리 마을로,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원이고 전남도와 화순군이 각각 1500만원을 지

원한다. 전남도는 도서관이 없는 읍·면 지역의 경로당 등 유휴시설에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시책으로 마을도서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지난 6월에 농·어촌진흥재단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 도서구입 사업에 전국 50개소 중 6개나 선정되고, 이번에 도비 공모사업 선정으로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문화공간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중부취재본부=조성수기자 css@

장흥농협 원로 조합원

해맑음 실버대학 운영

정남진 장흥농협(조합장 강경일)이 원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맑음' 실버대학을 운영, 호평을 받고 있다.

정남진 장흥농협은 지난 9일부터 다음달까지 2개월간 65세 이상 조합원 102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실버대학 과정을 운영한다.

실버대학은 노년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건강강좌를 비롯해 레크레이션, 자녀와의 대화기법, 노래교실, 성교육, 치매 및 우울증 예방 등 노년에 필요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전 북

양봉농가 폭염·폭우 피해 가중

벌 개체수 급감...논·밭작물처럼 피해 보상 바라

전북지역에 폭염과 폭우가 계속되면서 도내 양봉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20일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에 따르면 최근 전북지역에 21일간의 폭염과 4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벌이 폐사해 봉군(蜂群)이 평년의 절반 수준밖에 형성되지 않았다.

올해 도내 양봉 농가의 벌 개체 수는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한 군당 3000~4000 마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벌 개체 수가 줄어든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때문으로 여겨진다.

계다가 폭우로 인해 병충해 등 2차 피해가 이어지면서 벌들의 꽃가루 채집이 급격히 줄었다. 벌의 활동 한계 온도인 35도를 넘어서는 무더위로 인해 벌의 수명까지 짧아져 개체수 감소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양봉농가들은 막대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축산이나 논·밭작물처럼 폭염피해로 집계되지 않고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행정당국은 양봉 농가의 호소에도 더위에 의해 벌이 폐사한 것이 아니라 꽃가루가 부족해 2차 피해를 본 것이어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양봉농가들은 앞으로 폭염피해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화 한국양봉협회 전북지회장은 "축산농가처럼 양봉 농가도 폭염 피해에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면서 "그것마저 어렵다면 타 시·도에 비해 20%도 못 미치는 꽃가루 지원을 다른 지역의 절반 수준만이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양봉 농가가 1,111가구가 있으며 벌통 13만3553군을 기르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전북대 학생·교직원 수해현장 돕기

전북대 직원과 학생들이 최근 4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져 수해를 입은 군산시에 한 서점을 찾아 물에 젖은 책을 치우고 있다. /연필뉴스

단 신

폭우피해 군산 자영업자 긴급자금 지원

전북도는 12~13일 440mm가 넘는 폭우로 피해를 본 군산지역 자영업자에게 긴급 복구자금을 지원한다.

긴급 자금은 최대 5000만원(제조업은 1억원)으로 연리 3%다. 상환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피해를 본 자영업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받아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를 위해 전북 신용보증재단은 21~22일 군산에 출장소를 운영한다. 문의 전북신보보(063-230-3333)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군산 시립도서관 강연·도서나눔 행사

군산 시립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강연, 매직쇼, 도서나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한다.

9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에는 '초등 고전읽기 혁명' 저자 송재환 작가가 참여해 우리 아이를 변화시키는 고전 읽기의 방법에 대

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9월 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는 코미디 광광 매직쇼를 마련하며, 9월 8일 토요일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매직쇼가 끝난 후 도서관 정문에서 시민들에게 잡지 및 도서 나눔 행사를 진행한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성기자 nogusu@

김제경찰, 실종아동 예방 사전등록제 호응

김제 경찰서(서장 이상주)가 지난 7월부터 실종아동 등 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제 관내에는 80여명의 신청을 받아 등록중이다. 사전등록 신청방법은 집에서 안전드림(Dream) 홈페이지나 가까운 경

찰관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상주 서장은 "실종아동 등의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해 대상자가 더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제도임을 홍보해 실종아동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

남원시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대상자 접수

남원시는 20일부터 31일까지 읍면동 및 관내학교, 청소년 관련 단체를 통해 2012년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추천·접수한다.

지원내용은 입학금과 공과금(수업료 등) 전액 또는 일부, 기

술습득 및 자격취득을 위한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500만원의 청소년 자립 지원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백성기기자 bs8787@

지난 100년을 통해 미래 100년을 본다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 '근대' 주제 기획전 전시

"지난 100년의 시간여행을 통해 향후 100년의 미래를 펼쳐보자." 김제 벽골제 농경문화 박물관이 지난 7월 27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근대'를 주제로 한 이색적인 기획전시를 개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박물관은 1900~2000년까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던 지난 100년의 시간을 '근대'로 규정하고, 근대 100년을 ▲근대 수용의 내재적 갈등기였던 조선후기 ▲전방위적 약탈이 자행되

었던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의 빛과 그림자 등 3시기(5주제)로 나눴다.

조선후기는 향약과 김제군읍지를 통해 전통사회의 공동체적 질서를 만

난다. 일제강점기는 조선총독부 농사지식 보급관 기술서를 통해 기술보급을 통한 약탈의 현장을, 소화8년(1933)미가 고저표를 통해서 자본 투기적 성격의 미두시장을, 자애기라는 이름의 아사히신문 기증 농비가 탁아소 깃발을 통해 산비중식의 현장과 만난다. /전북취재본부=홍윤선기자 hnews@